

보도자료



배포일	2016. 8. 9.(화)	배포	기획처 홍보팀(02-880-5054)
담당부서	시설기획과 공과대학	문의	시설기획과(02-880-5145) 공과대학(02-880-7020)

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아름다운 기부

故유희진 동문 기부로 학술정보관 건립... '유희진학술정보관' 2018년 완공

- 서울대는 2016년 8월 9일(화) '유희진학술정보관' 기공식을 가졌다. 이날 행사는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,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- 공과대학(301동) 인근에 지어질 유희진학술정보관은 의미가 남다르다. 유희진 학술정보관은 발전기금을 기부한 故유희진 박사의 이름을 따 명명하였다.
-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故유희진 박사는 지난 2009년 돌연 구강암 판정을 받았다. 당시 유희진 박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신념하에 전 재산 154억원을 서울대에 유산기증하기로 하였다. 특히 후학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활용되기를 원하였다.
- 불편한 병환의 몸으로 직접 서울대를 찾아 유산기증을 한 유박사는 수술 날 짜도 늦출 정도로 나눔에 대한 헌신을 실천하였다. 자신에게는 매우 인색했으나, 병원비를 아껴 기부금에 보탬 정도로 사회를 향한 마음은 넉넉하고 너그러웠다. 2011년 11월 안타깝게도 유희진 박사(당시 53세)는 2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유명을 달리하였다.
- 당시 서울대는 (재)서울대발전기금 주관으로 장례식을 엄수했으며, 이후 매년 고인의 기일을 기려 추모해오고 있다. 2014년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유희진 박사에게 발전공로상을 수여하였다

□ 성낙인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“이 건물에서 공부하는 많은 후학들이 故유희진 동문이 실천한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기억할 것이며, 나아가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을 남들에게 다시 베푸는 선한인재로 자라게 될 것이다” 고 말했다.

□ 유희진학술정보관은 지하1층 및 지상 6층 규모로 2018년 7월 완공 예정이며,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.